



11면

남원 '국가생태관광지' 2곳 지정 쾌거

# 전주매일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음 9월 6일) 제33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한옥마을 중심 전주 관광 한계 극복

**‘왕의 공원 프로젝트’**  
전주시, 1차 릴레이포럼  
고유 역사문화 등 활용한  
신개념 도시브랜드 구축  
사업 타당성 확보도 필요



19일 전주시에너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왕의 공원 프로젝트 1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주열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소장은 19일 전주시에너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왕의 공원 프로젝트 1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 기반구상 용역을 통해 확정된 31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유의 역사문화 등 활용한 신개념 도시브랜드 구축 사업 타당성 확보도 필요

이주열 소장은 “전주시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 한계를 극복하고, 전주의 고유한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는 10년간 1조7,000억의 대규모 재정투자

를 계획하고 있어 국가 재정투자 필요성을 비롯해 실효성 및 시급성 등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사업 형태로 구성된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사업별 유형화와 연계화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배원 왕의 공원 프로젝트 추진단장은 “왕의 공원의 역사적 근거에서부터 관광정책과 연계 방안,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세부 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왕의 공원 프로젝트 방향성을 명확히 해 전주의 새로운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포럼에 이어 오는 26일과 11월 3일 각각 ‘정부 정책과 왕의 공원 연계전략’과 ‘왕의 공원과 전주의 미래발전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더 릴레이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08% 인상 시행

올해부터 기초수급 신청과 함께 바우처 신청 가능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 변경 있을 시 신규 신청 필요

전북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원금 인상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각각 △1인 가구는 11만8,500원에서 24만8,200원으로 △2인 가구는 15만9,300원에서 33만5,400원으로 △3인 가구는 22만5,800원에서 45만5,900원으로 △4인 이상은 28만4,400원에서 59만7,500원으로 작년 대비 108%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이나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F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

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올해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 변경이 있거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해 신청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기한은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kj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가을·겨울에 이르면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인상한다”며 “특히, 에너지 복지혜택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전북교육청, 17개 지표 중 16개 지표 통과  
교육환경 개선 노력 등 6개 지표 평균 상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국가시책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미래인재 양성, 국가교육 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북교육청은 17개 지표 중 16개 지표(94.1%)를 통과했다. 특히 한글책임교육 내실화, 진로 교육 역량 강화,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환경 개선 노력 등 6개 지표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상회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전북교육정책 추진에 긍정적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교육공공체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도민 정서 반하는 명예도민증 취소해야”

이병철 도의원, 국힘 전북동행의원 명예도민증 수여 문제와 관련  
“특별자치도법 반대하는 등 ‘전북도 저격수’ 역할 수행” 질타  
도 “취소여부는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해야”



이병철 도의원은 “특히 전주 동행 송연석 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평

버리를 광계로 예산이나 빼먹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한 인사”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 수여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초 전북동행 의원들의 명예도민증 수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전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명예도민 중 전북도 주요 안전에 반대한 인물인 서병수·김병욱 의원과 전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새만금 예산 삭감에 앞장서고 있는 송연석 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김관영 도지사의 생각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법안 제·개정 등에 협조한 점, 새만금 SOC 예산확인이 필요한 현 상황, 취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북동행 의원 중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전북도와 여야를 넘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은 19일 진행된 제40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도가 국민의 힘 소속 동행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여한 명예도민증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부적절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는 전북도의회에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제출된 사전 동의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논의 끝에 9월 16일 보류처리 되었고, 이후 전북도는 해당 안건을 철회한 후 같은 화기인 9월 28일 긴급안으로 또 다시 제출해 9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반대토론 끝에 원안 가결되었다. 당시 해당 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함이라고, 이에 대해 의회 내에서는 전북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는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로 전북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만 이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 및 법안을

### 축! 전주매일 창간

행정안전부 완주군

#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 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담례들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 만원까지

기부 방법 (2023.1.~)

-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기부자 지역단체 지역특산물

세액공제, 담례증 제공 지역특산물 공급

kakao 채널 완주고향사랑 완주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063-290-2391 ~ 2392